성남시
www.cans21.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비전성남
Vision Seongnam

2011년 12월 · 통권 제197호 12

스마트폰으로 비전성남 보기

•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에서 '비전성남' 검색 후 〈비전성남〉 어플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 위쪽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해요, 성남시 SNS

• **트위터** http://twtkr.com/seongnamcity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eongnamcity
• **블로그** http://moranpeople.tistory.com

이번호부터 기사에 붙은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분야의 추가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7 · 9 · 14 · 15면)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된다

우리 시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미금정차역이 설치된다.

성남시는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경기철도(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계자 회의를 거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미금정차역 설치를 10월 2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사업 초기부터 시는 장기적 교통정책 관점에서 미금정차역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으나 미금역 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사업이 승인됐고, 미금역 추가설치 문제가 일부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사업시행자가 '광교주민의 미금정차역 반대 민원 해결 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을 통고해 온 것이다.

하지만 시는 미금정차역 설치의 당위성과, 설치되지 않을 경우 발생될 문제점을 국토해양부, 경기도, 수원시, 경기철도 등 관련 기관에 제기하고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는 즉각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연장선 공사는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미금역사 설치 확정 시까지 점용허가 등 관련 인 · 허가를 금지하는 등 강공책을 펴왔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을 비롯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등 총 60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미금정차역유치추진위원회, 관계기관, 정치권 등 다각적인 채널로 미금정차역 설치를 위해 적극 대처해왔다.

〈3면에 계속〉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홍보담당관실
주소 우)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전화 1577-3100 | 031-729-2114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은 월1회(25일경) 발행됩니다.

Contents

2011년 12월·통권 제197호

02 독자마당

03 성남은 지금
2016년 완공되면 정자역 교통 혼잡 해결 기대
유치원 5세아·초등생·중 2,3학년생 전면 무상급식

04 성남은 지금
2011년, 성남시 옛 청사 '역사 속으로'
2015년, 성남시민의 숙원, 시립의료원이 '우뚝'

05 사회적기업
우리 고장 예비사회적기업 탐방 |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시민주주형 사회적기업으로"

06 우리 이웃
아름다운 나의 서재 | '독서천재' 정회일 작가
성남건설기능학교 탐방

07 우리 동네
'내가 주인'…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
축구 동호회 탐방

08·9 특집
나누면 행복해져요

10 건강
건강 100세 | 놀고 싶어요!
건강교실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협력 강화 外

11 교육·청소년
꿈을 연주한다 | '엘 시스테마' 어울리오 오케스트라
에너지절약 생방송 현장에서

12 시의회

13 시정소식
위례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 본격화
주민등록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14 시정소식
'2011 홍콩미용박람회' 성남관 성황
수정아이사랑놀이터에서 육아 도움 받아요!

15 정보나눔

16 성남 100배 즐기기
겨울 레포츠, 시청에서 즐기세요!

아들의 입대

전연희 | 중원구 상대원3동

무남독녀를 유학 보낸 한 친지는 이렇게 말했다. "방학 때 아이가 집에 오면 아이가 무슨 말이라도 걸어올까, 뭐 필요한 거라도 없나, 그저 몇 마디 말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 부부가 온종일 아이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니까."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기쁨삼아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커가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품은 너무나 좁다. 그걸 알면서도 자식만 바라보는 '자식바라기'가 돼가는 부모가 어디 우리뿐일까.

그렇게 키우던 아이가 2년 넘게 부모 품을 떠난다면? 군대 말이다.

요즘 아이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 동창이니 선배니 밤낮없이 만나고 돌아와 아침나절 밥도 먹지 않고 쓰러져 자는 아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꽃다운 스물 두 살의 대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송별 모임을 갖느라 취해 들어오는 게 걱정도 돼서 술 좀 적게 마시고 일찍일찍 들어오지 그러느냐고 하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요즘엔 잠이 잘 안 와요. 술에 취하면 잠이 잘 와서 마시는 건데…."

아이는 얼굴을 쓰다듬고 바라보는 제 엄마를 눈 감은 채 끌어안으며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 쇠붙이라도 소화시킬 혈기 왕성한 나이에 병영생활을 하러 들어가야 하는 마음고생이 그토록 깊은 줄은 몰랐다.

평소 아들이 '우리 엄마는 푸근한 느낌보다는 자기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 같다'고 불만을 털어놔도 철딱서니 없는 녀석이라며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그런데 입영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가슴이 싸하게 아파온다. 눈가가 젖어오고 침도 말랐다.

익숙한 것, 일시적이나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입영일이 가까워지면서 초조함은 이제 내게도 찾아온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잠 못 드는 입영 앞,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드디어 입대일. 부대에 가 보니 그동안 마음을 잡지 못해 초조해 하던 아이는 머리 깎고 굳건한 모습으로 여러 장정들 틈으로 들어갔다. 전역할 때까진 2년에서 한 달이 빠진다고 하는데, 벌써 내 맘속에선 아들놈 제대할 날을 꼽아보는 부질없는 셈도 해본다.

하지만 자랑스럽다, 내 아들. 덕분에 부모와 친지, 모든 이웃이 행복하게 사는 거다. 힘겨운 여정이지만 유쾌하게 즐길 걸로 믿는다, 내 아들.

독자 사랑방 '소곤소곤'

성남시 트위터 '소통의 맛'

윤준필 | 분당구 수내동

보통 기관의 트위터는 아르바이트생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진행하는 행사나 잘한 것에 대한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돼 일방적 소통의 창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신선한 충격이 있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가 그것이다.

약 10일 전 밤, 광명 KTX역에서 성남 분당으로 오는 급행버스를 타면서 몇 가지 불편한 생각이 들어 성남시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첫째, 이런 종류의 급행버스에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자리가 유명무실하고, 둘째 가끔 이용하는 분당~서울행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 입석도 운영해 큰 사고 우려가 있다는 거였다.

과연 반응이 올까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출근해 9시가 조금 넘자 "안녕하세요. 성남시콜센터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교통지도과 버스행정팀에 전달하였습니다. (중략) 오늘도 행복하세요."라는 답변이 왔다.

그 후 20분 정도 지났을까? 버스행정팀에서 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요청을 하고, 서울행 광역버스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답변을 빨리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성남시 트위터를 운영하는 분이 공무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그것 참 소통의 맛이 있네!'였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모든 창구가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달의 포토

율동공원으로 나들이 간 형제. 책테마파크 앞 소라껍질 속으로 쏙~ '내 포즈, 어때요?'
김애란 | 중원구 성남동

독자마당 안내

독자 수필(원고지 5매 내외)과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상), **독자사랑방 원고**(칭찬, 제언, 편지 등)를 모집합니다. 12월 7일(수)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이메일 sn997@korea.kr

〈비전성남〉 지면에 실리지 못한 소식은 선정해 비전성남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다 다양한 성남소식을 만나보세요.

비전성남 Vision Seongnam

무료 정기구독 안내

-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을 보면 성남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매월 25일경 발행).
- 연 락 처 : 〈비전성남〉 편집실
  전 화 : 729-2075~6
  이 메 일 : sn997@korea.kr
  홈페이지 : http://snvision.seongnam.go.kr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설치 1면에서

2016년 완공되면 정자역 교통 혼잡 해결 기대

60여 차례 관계기관 협의 끝에 미금정차역 설치 확정
민 · 관 · 정 협력의 성공 모델… 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 '쾌거'

민 · 관 · 정 협력의 성과인 이번 합의에 따라 미금정차역을 설치하고, 미금정차역 건설비와 운영비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분담하며,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등은 우선 추진하게 된다. 또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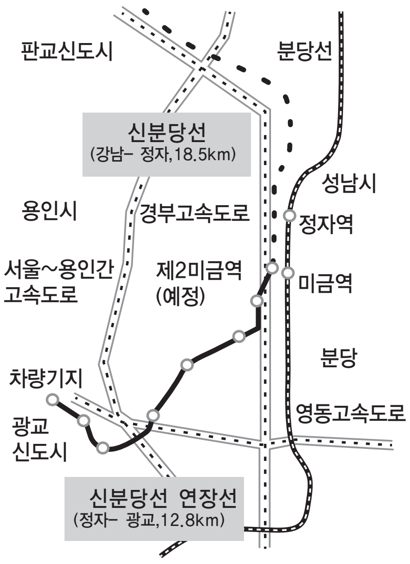
국토해양부는 미금정차역은 경제성, 역간 거리, 연계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설치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총길이 12.8㎞(차량기지 포함)로 2016년 2월 개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금정차역이 완공되면 성남시민은 물론 분당선 미금역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을 이용하는 용인 서북부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자역 환승이용객이 미금역으로 분산됨에 따라 성남대로 정자역의 교통량 집중과 상시 혼잡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신분당선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을 통과함에 따라 강남 출퇴근 수요자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는 등 서울접근성이 높아져 분당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등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신분당선 1단계 구간(강남~정자)은 약 16분 거리로 지난 10월 28일 개통됐다.

교통기획과 신교통팀 729-3793



유치원 5세아 · 초등생
중 2, 3학년생 전면 무상급식

내년 학기부터… 무상급식 지원율 50%로 상향

성남시는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에서, 유치원생 5세아와 중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타 지자체와 급식비 차등지원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 11월 2일 원만한 협의를 이뤄 내년 학기부터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하반기부터 도내 29개
ô tɕ [illegible] ˎ tɕ
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를 지원 대상에서
ˮΩ, 0.// ḹ ἑ Ŝ ˎ₩ γ ô ˥ ǯ
무상급식비 최소 지원율인 50%와 차등을 둬 30%만 성남시에 지원해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재정상태가 비슷한 수원 등과 같은 50% 지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번에 타 시 · 군과 같은 지원 비율로 형평성을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내 118개 유치원의 5세아 3,800여 명과 67개교 초등생 5만7,200명, 45개교 중학생 2만5천명 등 모두 8만6천여 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돼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과 청소년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급식지원 기준일은 유치원 200일, 초 · 중학교는 180일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지원율이 상향조정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고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시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201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구미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성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타 지자체에 앞서 2007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비 전액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이 정착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체육청소년과 학교급식지원팀 729-3442

2011년, 성남시 옛 청사 ‘역사 속으로’

건축한 지 28년 된 성남시 옛 시청사(수정구 태평2동 소재)가
발파해체 공법으로 지난 10월 31일 철거됐다.

| 성남시의료원,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

2006.3.31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06.4.17	성남종합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2007.10.16	성남시립병원 설립부지 및 규모결정 (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2007.11.26	성남시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08.4.17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사업비 1,612억원)
2008.5.23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2008.10.3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1,612억원)
2010.8.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2011.2.22	의료원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준공
2011.4.22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비 1,612억원 → 1,902억원)
2011.5.11	의료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위탁 적정성 심의(적정)
2011.9.7	구 시청사 철거멸실 신고수리
2011.9.19	구 시청사 철거 착수
2011.11월	의료원 건립공사 입찰공고
〈추진 예정〉	
2012.2월	기본설계(3개월)
2012.3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012.3월	실시설계(6개월)
2012.6월	본 공사 착공
2012.9월	실시설계 심의
2015.8월	준공

2015년, 성남시민의 숙원 시립의료원이 ‘우뚝’

철거된 옛 시청사 자리에는 본시가지 주민들의 ‘건강지킴이’가 될
시립의료원이 지하 4층 지상 11층, 450병상 규모에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지역 공공병원으로 2015년 8월 들어선다.

시립의료원이 꼭 필요해요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위급할 때 급한데
분당까지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최화순 | 수정구 신흥동

“이 근처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중증환자가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을
찾으려면 병원이 없어요.”
이정운 | 중원구 성남동

“뇌졸중이나 쓰러졌을
경우 시간이 촉박한데
생명의 위험도 있어요.”
오수차 | 중원구 금광동

- **2003년 수정구 지역 성남병원 · 인하병원의 연이은 폐업으로 본시가지에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요.**
  - 수정 · 중원구 지역주민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 대폭 감소 (2002년 40.1% → 2004년 16.1%)
  - 응급의료센터 : 수정 · 중원구 없음, 분당구 3개소
- **본시가지 응급의료센터 부재로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아요.**
- **서울이나 분당 등 인근지역 원정 진료에 따른 시간적 · 경제적 불편 겪어요.**
- **분당구 중심의 편중된 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의료기관 이용 기회 상실로 상대적 박탈감 존재해요.**
  - 병원급 의료기관 : 수정구 4개소, 중원구 1개소, 분당구 14개소

성남시 www.cans21.net

우리 고장 예비사회적기업 탐방 |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보다 밝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길 원하는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Education

중원구 도촌동에 자리한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대표 정정옥)는 2010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소외되는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제공해 성공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심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부모와 자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학교 부적응 · 게임중독 · 인터넷 중독 등 행동과 정서에 문제가 있는 성남지역의 아동 · 청소년 · 성인을 대상으로 20년간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술 · 놀이치료로 가족기능 지원

한 달 140여 명이 폭넓게 치료받는 센터에는 경력 5년 이상의 석사 이상 전문 심리치료사 18명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들은 치료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적 자원을 나눔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자신이 개발한 아이템을 치료에 아낌없이 도입하는 주인의식도 가지고 있다.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다방면에서 심리 · 사회적 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지원한다. 이용방법은 전화 상담예약을 거쳐 초기상담과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등록 후 심리치료와 부모 상담을 할 수 있다.

김한희(43) 총괄팀장은 "처음 방문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지만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편부와 발달장애인 동생과 생활하는 4학년 아동은 4학년이 될 동안 '사람'을 그리지 못했는데 2년 동안 꾸준히 진행한 결과 이제는 가족을 그리고 집도 그릴 수 있는 밝은 아이가 됐다"며 환한 얼굴로 사례를 소개했다.

수익은 심리치료지원 장학 사업

센터의 수익은 다시 심리치료지원 장학 사업에 쓰인다.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2,3년간 지속적으로 20여 명을 치료하고 있다.

정정옥(51) 센터장은 어린이집 원장 시절, 졸업 후 초등학교에 가서 거칠게 변하고 의사표현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서지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1989년부터 치료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

정 센터장은 "병원치료까지 가기 전 조기에 개입해 치료하면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제자리로 올 수 있어요. 앞으로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돼 부모, 교사 누구든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곳으로 만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부모교육과 가족지원 사업에 비중을 높여 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친절하고 환한 표정의 직원들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푸근하게 아이들을 감싸 안는 정 센터장의 노력으로 모든 상담자들이 밝고 맑은 새날을 맞기를 기원한다.

| 개별프로그램 | 상담/미술치료/놀이치료/언어치료/인지학습학습치료/부모교육

| 집단프로그램 | 내 안의 감정 연주하기, 내 아이 사회성 크게 키우기, 언어 사회성 그룹치료, 움직여~ 느끼고 표현해봐!, 학교가 재밌어요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758-9808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시민주주형 사회적기업으로"

내년 10개사 등 단계적으로 15개 업체 전환

성남시의 15개 청소용역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10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2011 성남 살림의 경제한마당' 개막식에서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해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고용, 임금개선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시의 15개 청소용역업체를 전면 사회적기업 또는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용역업체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전담키로 했다"면서 "내년에 우선 10개 업체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에는 ▲ 주민생협, 가나안근로복지관 등 8곳의 사회적기업과 ▲ 행복도시락 성남점, ㈜로운 등의 예비사회적기업 17곳 ▲ ㈜나눔환경(사진), ㈜두레, ㈜우리환경개발, 그린나래 등 성남시민기업 4곳 등 28개 사회적기업에 543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성남시의 사회적기업 종사자는 10개 업체 230명이 증가해 총 38개 업체 77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주주기업은 성남시민이 주주 또는 조합원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으로, 주주 구성원 중 성남시민이면서 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및 조직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성남시 또한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얻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적기업팀 729-3662

아름다운 나의 서재

'요즘 것들은 책을 읽어도 생각을 안 한다. 그런 건 진정한 독서가 아니다'는

정조대왕의 말씀 실천하는 '독서 천재' 정회일 작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배움에 있어 즐기는 것이 으뜸이라는 뜻이다. 독서를 통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며 즐기는 사람이 있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모으는, 운명을 바꾸는 책읽기 프로젝트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의 공동저자 정회일(분당구 정자동 · 사진) 선생이다.

20대 때 지독한 가난과 건강악화로 5년 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정 선생은 2004년 11월, 독서를 다시 하면서 자연히 생각도 바뀌고 성장하면서 독학으로 영어공부를 시작,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기부하는 사람이 됐다.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독서"라며 "독서를 통해 배운 대로 도전하고 기부하고 행동하면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니까 재미있고 즐겁다"는 그는 직접 경험의 시간적 · 물질적 제약을 뛰어넘는 것도 독서라고 한다. 또한 독서를 바탕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독서법과 관련한 책을 출간했다.

"나와 내 스승님이 독서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성장 없는 인생을 반복해 사는 또 다른 '나'를 끄집어내어 그들의 성공을 바랐다"며 "좋은 것은 알리고 서로 나누어야 한다"면서 웃는 그의 얼굴은 맑고 평화롭다.

제 자리에 머물기 위해 쉼 없이 뛰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배로 뛰어야 하는 '레드 퀸의 효과', 그러나 위대한 성공을 위한 질주를 즐기는 그는 자기계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기본으로 한 훌륭한 조언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고 감사하다"며 "독서는 단지 생각거리고 책을 읽고 난 후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실천하기 나름"이라는 그는 스승이자 베스트셀러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의 공동 저자인 이지성 작가와 함께 아시아 저개발국가에 우물파기와 학교와 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지성 작가는 개구리로 우물에서 나온 나를 큰 강과 바다로 이끌어 주셨고 더 큰 생각의 틀과 세상을 보여주신 분"이라며 자신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정 선생.

성장을 위한 자기계발과 자기관리에 있어 최대 방해요인은 자기 자신이다. "잘못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행위, 변명은 버려야 할 습관 중의 하나"라는 그는 마음에 영웅을 갖고 있으면 어떤 방해 요인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억대 연봉가로 영어학원 '영나한'의 원장이기도 한 그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배우면서 성장하듯 서로 돕는 일'이며 배움, 일, 나눔, 독서하고 실천하는 삶은 하나라고 한다.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며 즐기는, 그는 마음이 크고 따뜻한 겸손한 사람이다.

조민자 기자 dudlfdk@hanmail.net

성남건설기능학교 탐방

건설기능인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

성남건설기능학교는 성남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기능향상과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정식 발족한 건설노동조합의 부설기관이다.
성남지역 건설기능교육훈련 취업지원 사업은 지역 내 실업계층을 대상으로 기능훈련과 상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업극복사업이다. 협력단체인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와 성남건설기능학교 산림조경교육훈련과정 교육수료생 12명에 대한 우선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협약을 맺고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성남건설기능학교는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립적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인테리어 목공, 산림 과정 무료 진행

인테리어 목공을 강의하는 최성식(58) 목공기능장은 "목공이 인테리어에서 모든 작업과정을 주관하는데 배우면 자기 집도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면서 "수동대패와 톱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것이 기본"이라며 차분하게 대패질을 연습시킨다.

산림을 강의하는 정형균(41) 산업기사는 숲 가꾸기에 일조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만족이라면서 교육생에게 산림에 대해 공부해 볼 것을 권한다. 광릉수목원에 가서 나무의 수형과 수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실습시간과 숲 가꾸기에 참석하는 노동의 시간도 있다. 버드나무도 나무들과 경쟁하면서 크면 곧게 자란다는 새로움도 알 수 있다.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과정을 보면 인테리어 목공과 산림과정이 2개월씩 3기에 걸쳐 진행되고,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지난 11월 5~6일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는 거푸집종목에서 성남건설기능학교 3기 출신 정준오(40) 씨가 1등, 2기 박경호(35) 씨가 3등을 차지했다. 박경호 씨는 "더 열심히 배우고 익혀 외국에 진출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목공기술로 승부하겠다"고 다부진 모습이다.

3기 과정은 매일 오후 6시~9시 30분 야간수업으로 진행되는데, 강남에서 낮에는 방수작업 일을 하고 수업시간에 맞춰 교실로 서둘러 들어오는 조충진(65 · 하대원동) 씨는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이론으로 정립하고 싶어서 왔는데 재미있다"고 한다.

정부중(52) 건설기능학교장은 국가기간산업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데, 건설기능학교 출신이 시민주주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서 "이 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시민주주기업은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조경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시의 크고 작은 공사에 불러 주면 성실한 작업으로 보답하겠다"며 시민의 관심을 부탁했다.

호주로 취업을 원하는 용접경력자와 석공, 워킹 홀리데이 보조를 모집한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앞으로 건설기능인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성남건설기능학교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무료로 수업과 직업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4기 모집이 있다.

성남건설기능학교 626-5112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내가 주인’…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

“한 아이가 우울하면 온 동네가 걱정하는 그런 마을을 꿈꿉니다”

작고 좁다란 골목길 사이와 지붕 끝이 가물가물 보이는 언덕길 사이에서, 높고 넓은 아파트 숲 사이에서도, 다 제 빛깔로 동네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 동네 안에서 가족을 넘어 이웃도 만나고 세계와도 통한다.

그렇게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는 어떤 모습일까?! 훗날 아이들에게 행복한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동네. 어디서나 안방같이 편안한 동네. 한 아이가 우울하면 온 동네가 걱정하는 마을. 별거 아닌 것도 작은 축제로 만드는 동네….

사랑마루의 작은 축제 ‘우리 동네 페스티벌’ 열다

동네 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지난 1년 동안 동네 만들기를 진행해온 태평동·은행동·도촌동·삼평동·정자동·수진동·상대원동 등 7개 동의 결과물로 11월 26일 오후 1시부터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우리 동네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페스티벌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동네 미니어처 전시와 천연비누 만들기·에코백 그리기·나무요요 만들기 등 체험마당, 그리고 기타 연주·댄스·영상 상영 등 공연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황정주 사랑마루 총감독은 “우리 동네를 넘어서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교류와, 하면서 즐거운 것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랑마루’는 2006년 우리 동네 공동체 만들기로 출발, 시범 동네였던 태평4동의 문패와 메뉴판 바꿔주기를 시작으로 2007년 은행동 풀장을 활용한 ‘풀장환상’, 2008년 상대원 공단프로젝트로 벽화사업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대원 신나는 방송국 원다방’ 개설 등 우리 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꾸준히 지원해 왔다.

2009년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 동네 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는 그동안의 지원으로 자립한 동네와의 지속적인 연계와 함께 매년 새로운 한 동네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예로 태평4동 어린이들이 2007년부터 만들어온 마을신문 ‘한울신문’, 신나는 상대원 방송국 원다방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대상 방송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아파트촌 삼평동 주민들의 ‘봇들골 마을축제’ 등을 들 수 있다.

황 감독은 “동네 만들기의 주체는 주민인 만큼,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려면 주민 모두가 그 동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된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 알고, 꿈꾸고 사랑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적극 동참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동네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랑마루는 그동안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동네 만들기에서 내년에는 복지·교육·생태·환경을 연계한 통합형 동네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 과정을 추가한 ‘마을 만들기 아카데미’를 통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매주 일요일 아침, 학교 운동장이 들썩인다. 축구가 좋다는 사람들, 축구공이 만들어준 식구들의 일요일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다. 많은 축구 동호회 중 수정FC(Football Club) 팀이 축구를 하고 있는 풍생중고등학교를 일요일 아침 방문해봤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 활기찬 수정FC

추가사진

축구 동호회 탐방

수정FC는 올해로 창단 13년을 맞이하는 비교적 역사가 깊은 축구팀이다. ‘나이를 떠나서 축구를 좋아하기만 하면 된다’는 팀의 모토에 맞게 막내 27세부터 맏형 52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자영업·회사원·서비스업 등 직업 또한 각양각색인 32명의 사람들이 축구공 하나를 가운데 두고 한 식구가 됐다.

기자가 방문한 일요일 아침에는 수정FC 대 풍생FC의 시합이 있는 날이었다. 전반전 경기가 한창일 즈음 선제골을 획득한 수정FC.

“예상 밖의 결과”라며 좋아하는 이정윤(52·수진동) 회장은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 젊은 친구들만 뛰게 할 수도 없고 나이든 친구들과 함께 뛰다 보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식구가 어우러져 함께 뛰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말한다.

회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 한결같은 목소리다. “부상을 당해서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미혼이라는, 팀의 막내 최수근(27·상대원) 회원은 “직장 때문에 매주 일요일 중 단 하루라도 축구를 못하면 일주일이 무겁다”며, ‘장래 배우자가 축구를 싫어한다면 배우자와 축구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는 짓궂은 질문에 “꼭 축구를 이해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재치있게 답변한다.

회원들은 많은 수의 축구 동호회에 비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축구를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수정FC 축구 동호회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앞으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나누면 Happy 행복 해

12월, 또 한 해가 가고 있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바라보며 올해도 숙제처럼 ㄷ
미련은 없는지 떠올려 보게 되는 시점이다. 작지만 올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민들의 나눔

모란장날 함께하는 미용봉사

모락모락 김이 나는 거리의 찐빵이 가슴에 와 닿는 계절, 가진 재능에 정을 담아 이웃과 나누는 이들이 있다. BBS 미용봉사자들. '4', '9'가 들어가는 모란장이 열리는 날이면 지하철모란역, 사람들이 오가는 역 한 편에 거울을 놓고 '성남BBS미용예술전문학교'(모란역 8번출구 대경빌딩 3층)에서 나온 봉사자 몇 명이 머리를 자르고 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휠체어를 탄 이도 보인다.

6개월 미용 공부했다는 봉사자 김환옥(47 · 서현동) 씨는 "시간이 모자라 다 못 해드릴 때도 있고, 미흡하지만 감사해 하니 보람을 느낀다"며 미용기술 연마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모란장도 볼 겸 친구와 같이 왔다는 한 어르신(72 · 은행동)은 "첫째 무료라 좋고, 이렇게 와서 성심성의껏 해주니 고마워서 먹을 거도 사주고 그러지"라며 쑥스럽게 웃으시는데, 옆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왔다는 분도 있다.

어느 해 '지하철 가을 문화축제' 때부터 미용봉사를 하게 됐다는 미용학교 관계자 분은 "장애자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위해 지하철로 내려와 봉사한다. 이곳에서 다 못하신 분들은 학교로 올라오시면 다 해드린다. 모란장날 오후 2~5시 봉사를 하는데 어쩌다 예정이 취소되면 학교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며 이 봉사는 모란역사 측에서 장소를 제공해 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필요하신 분은 지하철 모란역 '맞이방'에서 하는 거리 미용실로 가 따뜻한 온정을 느껴보자.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취약계층 겨울나기 돕는 '시민행복기동대'

성남시가 지역 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1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민행복기동대'를 운영한다.

시민행복기동대는 홀로 사는 세대, 몸이 불편한 세대,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등을 찾아가 겨울철 일상생활에 꼭 필

₩ *. 、、˥ ğ
해 주는 공무원 봉사단체다.

、 . 、 ň µ Ɣ
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설 점검 외에도 저소득계층이 필요로 하는 도움은 관계부서, 봉사단체, 독지가 등과 연계해 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ţ ﻜﻤﻢ
시해 특별 점검 대상 1,500세대를 선정했다.

시는 저소득계층이 소외 받지 않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기획과 기획팀 729-2232

분당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식나눔

"선생님, 오늘 수업해요?" 지역사회스쿨 선생님 방에 정수(가명)가 고개를 내밀고 큰 소리로 물었다. 지역사회스쿨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다. 정수가 선생님께 여쭤본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

수정구 신흥동의 지역사회스쿨 지역아동센터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 6~7시에 공부방 도우미가 찾아온다. 분당중앙고등학교 과학중점과정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도우미들은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스쿨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수학과 과학을 번갈아 수업하며 수학도우미 5명, 과학도우미 5명이 일대일 멘토, 멘티 관계로 맺어져 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수업이지만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오가는 시간을 합한다면 한창 자기 공부에 바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시간이다. 학생들은 학교 시험기간에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기간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수업하기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점점 공부에 관심을 가지면서 좋아졌어요."(김재현)

"봉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수업을 해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보람됐어요. 멘티와 문자도 주고받으며 수업 외에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김지은)

지역사회스쿨의 민소영 선생님은 "서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공통 관심사를 찾으려 노력해 지금은 배우는 아이들이 도우미 선생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우미 선생님들의 노력과 성실성을 칭찬했다.

"도우미 선생님께 배우니까 학교 수업시간에 이해되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셔서 보충이 되고 좋아요"라는 지역사회스쿨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말에서 지속적인 봉사와 관심이 보여 준 교육 나눔의 참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스쿨 지역아동센터 732-3815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져요

마음에 남는
현장을 찾아본다.

‘희망의 아침’을 여는 무료급식소 ‘사랑마루’

따뜻한 식사로 ‘희망의 아침’을 여는 무료급식소 ‘사랑마루’(수정구 태평동). 지난 2009년부터 일용노동자와 인근 홀몸노인, 노숙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6시 30분~8시 하루 300여 명에게 정성 가득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우연히 잡지를 보고 2년 전 사랑마루와 봉사 인연을 맺은
× &’ 30 ˙ ' ἑ . * ₩.
세요” 하며 연신 웃음 띤 얼굴로 빤짝빤짝한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아 드린다. 특히 고기반찬의 특식을 준비할 때면 뿌듯한 마음이 더 커진다며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아져 안타까워한다. “봉사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며 배식 후 출근을 재촉하며 총총히 걸어 나가는 뒷모습이 활기차 보인다.

× Б&’ 34 ' ἑ ʞ ˜ ʃ
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곤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며, 요구르트 · 대추 · 밤 등 마음의 선물을 놓고 갈 때 가슴 뭉클해요.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힘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자 바람”이라며 “이렇게 희망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아침 무료급식이 끝난 후엔 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반찬배달, 다문화가정 요리강습, 농촌귀향 프로그램(일자리 창출)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후원문의 715-1910 |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헌혈, ‘생명을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13호 미금점 개소

한마음혈액원은 2002년 개설돼 2008년 헌혈카페 1호 신림점이 문을 연 뒤 13호 미금점(미금역 2번출구 앞 우방코아 3층)이 지난 9월 개소했다. 기존의 헌혈버스와는 달리 헌혈카페는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휴게공간과 채혈공간으로 구성된 신개념의 ‘헌혈+카페+문화’ 공간이다.

휴게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음료와 다과를 즐기고 채혈공간에서는 편안한 자세로 헌혈할 수 있는 침대가 모두 10개 놓여 있어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다. 한 쪽 벽면의 사진들 속 친구와 생일을 기념하며 헌혈한 모습, 데이트 백일 기념이라며 헌혈한 커플들의 모습 등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년 만에 헌혈한다는 박석진(36) 씨는 “헌혈하는 공간이 쾌적해서 좋아요. 그동안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들렀어요. 저도 응급한 상황에 혈액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라며 자주 방문할 계획이라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나래(20) 씨는 친구와 함께 두 번째 방문에서 헌혈 적격자로 판정 받고 생애 첫 헌혈자가 됐다. “얼마 전 가족 중 헌혈증이 없어서 병원에서 비싸게 수혈 받으셨어요. 헌혈은 곧 나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요.”

헌혈예약제를 시행하는 헌혈카페를 방문하면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헌혈기록카드 작성부터 문진, 헌혈 전 검사(혈압 · 체온 · 맥박 · 비중 · 혈액형검사 등), 헌혈, 그리고 기념품과 헌혈증서 발급까지 30분 정도 걸린다.

헌혈은 전혈과 성분 헌혈로 구분되며 성분헌혈은 혈장과 혈소판으로 구분된다. 헌혈 가능 기준 나이는 전혈 320㎖는 만16세 이상 70세 미만, 400㎖는 만17세 이상 70세 미만, 혈장과 혈소판 성분 헌혈은 만17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이 가능하다. 마지막 헌혈일로부터 전혈 헌혈은 2개월, 성분 헌혈은 2주의 회복기간이 지나야 다시 헌혈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혈액부족에 따른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보통 5일 정도가 보유량인데 현재 2~3일 정도밖에 안 돼 혈액부족으로 급한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김미숙 간호사는 “혈액은 보존기간이 35일 이내이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헌혈이 이루어져야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신체 건강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기를 권했다.

헌혈 후 9가지(빈혈 · B형간염항원 · C형간염항체 · 간기능 · 매독항체 등) 검사 항목에 대한 헌혈 혈액검사결과지를 15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한마음혈액원 698-2415 www.bloodnet.or.kr

월~토 11:00~20:00(일요일, 공휴일은 19:00까지)

심희주 기자 heejoo719@daum.net

탄천내 쓰레기(개똥) 무단투기 영상단속 중 – 과태료 10만원

단속대상 : 애완견 목줄 미착용 또는 배설물 미 수거,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신고전화 |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729-4322, 4323

H
e
a
l
t
h

건 강
100세

놀고 싶어요!

유 희 정
성남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장

초등학교 2학년인 성남이는 매사에 자신이 없고, 울고 짜증내며,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했다. 친구들과도 다툼이 잦았다. 어머니는 성남이가 혹시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평가 결과 집중력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성남이의 엄마는 어릴 때 기초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3세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철저히 계획을 짜서 선행학습을 시켰다. 지금도 매일 두 곳의 학원에 다니고, 별도로 피아노와 축구를 배우고 있었다.

평가 후 집단 놀이치료를 하게 된 성남이는 놀이 속에서 지지를 받았고, 엄마도 공부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가족이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성남이는 점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됐으며, 집중력이 많이 좋아지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필수이자 본능

겨울방학이 다가온다. 몇 년 전만 해도 방학은 소아정신과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좀 줄어든다. 아이들은 학원 일정이 더 바빠지거나, 영어공부를 위해 해외에 가기 때문이다. 학기 중에 실컷 놀지 못하는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도 놀 시간에 목말라한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노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늘 부모님의 한숨이 따라온다. '방학 동안에 부족한 공부 보충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놀기만 해서 어쩌나.'

아이들에게 놀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유아들은 엄마와 까꿍놀이, 간지럼태우기 놀이를 하면서 감정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고, 천장에 매달린 모빌을 보면서 시각의 협응을 키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손의 작은 근육의 정교함을 키우며, 소꿉놀이와 병원놀이를 통해 또래들과 주고받기, 양보하기를 배운다. 이런 놀이들은 사회 안에서의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조화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배우는 기초가 된다. 더 큰 아이들은 보드 게임, 스포츠와 같이 보다 복잡한 놀이를 통해 세상 안에서 사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익힌다.

정서적 경험, 학습경험보다 발달에 더 중요

놀이는 본능이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노는지 학습시키지 않지만 아이들은 노는 법을 터득한다. 전쟁통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논다. 놀이는 치유의 힘이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들은 자동차가 부딪히는 장면을 자꾸 재연하지만, 몇 달을 지속한 뒤 아이들은 드디어 교통사고에서 받은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 낸다.

성남이 어머니는 전략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면에서, 현 시대에 맞는 좋은 엄마의 덕목을 가졌다.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은, 놀이를 통한 정서적인 경험이 학습경험보다 건강한 발달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Ω ’ ἐ ʞ

가지고 있었고, 아직 유연한 뇌를 가진 나이였으므로, 단지 놀이를 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약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시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회복에 좀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을 좀 놀게 해 주자.

소비자 Q&A

광고와 다른 발열내복 반품

Q 2주 전 쯤 인터넷에서 발열기능이 있다는 내복 광고를 보고 부모님께 구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착용해보니 광고와는 달리 발열기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이미 착용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발열 기능 때문에 더 따뜻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구입했고, 또 착용해 봐야 그 기능을 알 수 있는데도 입어 봤다는 이유로 반품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와 다른 발열내복을 반품하고 구입가격 7만원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A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전자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 시에는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구매한 제품이 업체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상품 정보와 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착용한 사실과 상관없이 발열기능 없는 내복은 반품 및 구입가격 환급이 가능하며 더불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시정요구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건강교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지정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시범보건소인 수정구보건소는 10월 분당서울대병원 지하1층 의학연구소에 설치된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 내실 있는 아토피·천식예방 관리 사업을 편다.

교육정보센터에 시민대상 예방관리교육 강사 지원을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력, 아토피 환아 치료 연계 등을 돕는다. 또 안심학교로 지정 운영되는 성남양지초등학교·복정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알레르기질환의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3명의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 전화(1577-9642)와 온라인(www.e-allergy.org), 오프라인을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853

야간 금연 클리닉 운영해요

분당구보건소는 낮시간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지역주민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야간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18:00~20:00)은 야간 금연상담실,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19:00~21:00)은 야간 금연침 시술을 운영한다. 12월은 13일, 27일에 금연침 시술이 있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73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권고
가습기 물교환과 세정, 이렇게 하세요!

지난 11월 4일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에 의해 살균제의 안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용을 중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가습기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시설인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의 대표자 분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중단하고 가습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물 교환

- 하루에 한 번 물통의 물을 1/5 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궈준 다음 물을 넣는다.
-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모두 제거한다.

가습기 세척요령

- 세척 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진동자 부분과 물통은 이틀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천으로 닦아주고, 1주일에 한 번은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척한다.
- 진동자 부분은 세척 후 세제성분이 남지 않도록 키친타월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물통과 진동자 부분의 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 분무유도관과 분출구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솔이나 천으로 깨끗이 닦아준다.

수정구보건소 질병관리팀 729-3863

“꿈을 연주한다”

성남형 ‘엘 시스테마’ 어울리오 오케스트라 레슨비 걱정 않고 음악가의 꿈 키워

지난 10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외 아동 ·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에 성남의 ‘어울리오 오케스트라’가 선정됐다.

경제적 여건상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비를 받아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립교향악단, 성남청소년육성재단이 공동으로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어울리오 오케스트라는 중원구 도촌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4학년 30명을 선정, 매주 두 차례씩 중원구청소년수련관에서 리듬 · 음정교육, 관현악 합주 등 음악교육을 모두 32차례 레슨비 없이 진행한다.

유도경(도촌초 4) 양은 악기를 선택하기 전 [illegible] 히는 ‘구음법’으로 학원보다 쉽고 자세히 알려준다며 음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공부해 우정도 돈독해졌다고 한다. “멋진 곡을 빨리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프 악기를 연주하는 하피스트가 되고 싶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정수영(도촌초 4) 양은 강제적이 아니라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놀이로 전문적인 음악을 흥미롭게 배우고 있어 첼리스트 꿈이 한 발 더 가까워졌다며 선생님들께 감사한다고 한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 김태일 씨는 “음악의 아름다운 에너지로 정서적 안정감과 집중력을 키워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다 보니 잊고 있었던 순수한 동심의 눈높이에서 음악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동기부여가 돼 취미가 아닌 전공으로 아이들이 음악을 선택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은 레슨 등 음악적 기량 향상에만 치중하지 않고 캠프, 스쿨 클래식, 저명한 지휘 선생님의 특강, 다양한 연주회 참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음악을 통해 인성까지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는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1975년 음악을 통해 새로운 베네수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만들었다. 사회경제적 빈곤 계층으로 가난과 폭력, 마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던 아이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관현악 협주를 가르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고 탁월해져 희망찬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해준 기적의 오케스트라다.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2011 행복한 부모를 위한 명사특강

강의주제	운영일시	강사
자녀를 바꾸는 공부습관 형성법	12.1(목) 10:00	김 승(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
성장하는 아이! 고전으로 키운다	12.3(토) 10:00	송재환(작가, 교사)
명품자녀로 키우는 부모력	12.7(수) 10:00	송지희(부모교육전문가)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12.8(목) 10:00	고미숙(고전평론가, 작가)
내 아이 영재를 만드는 독서법	12.10(토) 11:00	박성철(작가, 교사)
다중지능! 색깔 있는 삶을 살아라	12.14(수) 10:00	문용린(전 교육부장관, 서울대학교 교수)
사유하는 교육, 줏대있는 부모	12.15(목) 10:00	고병헌(성공회대학교 교수)

- 인원 및 장소 : 학부모 60명, 우리도서관 1강의실
- 접수 : 11.25(금)부터 선착순 인터넷(80%), 방문(20%)
- 장소 : 홈페이지(www.snlib.or.kr), 1층 정보상담실

성남도서관 정보봉사과 730-3552~4

에너지절약 생방송 현장에서

“에너지위기 절약이 희망입니다”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에너지시민연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공동주택에너지절약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에너지 활동가 20명이 KBS 재난주관방송 특별기획으로 90분간 진행된 생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날 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강사 채창희(53) 씨는 가정에서의 대기전력차단과 고효율 전기제품을 사용해 전력사용량을 줄여보자는 시민실천운동으로 100만 가구 에너지절약운동을 소개했다.

성남동 어울림아파트(507세대) 장준섭(63) 입주자대표회장과 김은자(63) 부녀회장은 냉장고 60%만 채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매월 16일 소등행사를 실시해 지난 9월에는 97%, 10월에는 99%의 주민참여로 전기 사용량의 5.8%를 줄였다고 한다.

은행주공아파트 에너지활동가 방향자(54) 씨는 2005년부터 에너지 절약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1,900세대를 대상으로 연1회 100% 소등행사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물 잠그기, 멀티탭 활용하기, 플러그 뽑기, 아나바다 장터활동 등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자1동 느티마을(1,776세대) 부녀회 김수옥(52) 총무는 3년째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운동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약세대에 매월 멀티탭을 전달한다. 올해는 3회 소등행사를 했는데 길거리 캠페인과 공연을 병행, 남녀노소 함께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자발적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참여한 산성아파트 이영자(45) 자치회장은 360세대의 작은 아파트지만 10월 17일 80% 이상이 소등행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운동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에너지 활동가를 양성한 이경아(40) 사무국장은 “시민실천운동인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회장 김경의) 조례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한 실천운동으로 인해 활발히 절약운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공동주택에너지절약협약식을 통해 시장님과 관계자 분들이 보여준 관심이 에너지절약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성남시는 앞으로 자발적 에너지 활동가들이 요소요소에서 적극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그들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장대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 제1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대훈 의장의 개회로 시작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유석 의원과 유근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우선 김유석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체계와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의 특성을 자료화해 시설 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서 유근주 의원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 총인처리시설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5분 발언에 이어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개의 의안을 가결하고,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실시된 무기명 전자표결 결과 시의원 33명 중 30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끝으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제기한 재의 건인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추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청솔복지회관서 배식 봉사

28일, 의장 등 봉사활동 펼쳐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0월 28일 분당구 금곡동 소재 청솔복지회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복지시설인 청솔복지회관을 찾은 장대훈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시설 운영자인 김옥규 시설장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비해간 떡 3말을 전달한 후 경로식당으로 이동해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과일을 씻고 배식할 음식을 준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배식 및 서빙 등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20여 명에 달하는 시설이용자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배식과 서빙을 하며 시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성남시의회의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의회'상 제고는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16일 중원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올 3월 야탑동 소재 예가원에서, 6월에는 복정동 경로식당에서 실시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장대훈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비록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며,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에는 장대훈 의장을 비롯해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 이영희 의원, 박완정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와의 간담회 가져

최근 '도가니'라는 영화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점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10월 27일 오후 4시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기영 의원, 김해숙 의원, 김순례 의원, 김선임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 11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성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선 현장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다양한 사례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의회에서 지원할 사항은 적극 지원하고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등 장애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도시건설위원회

건축심의 문제, 현장서 직접 확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전 건축 심의를 받은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외 73필지에 대해 사전 건축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기중인 10월 18일 오후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강한구 위원장은 "도로를 폐쇄시키고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가정 하에 건축심의가 들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한 도시건설위원회는 용도 폐기를 성남시가 받아들이면 특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용도 폐기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유지 용도 폐기를 통한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도 전반에 대해 연말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위례지구 아파트 사업 추진 본격화

성남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받아

위례택지지구 아파트 사업이 본격화된다.

성남시는 수정구 위례택지개발지구(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와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 위례지구 사업권 확보의 일환으로 분양아파트 부지 6만4,713m²(1,137세대)와 임대아파트 부지 7만9,574m²(2,140세대)를 확보,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LH공사 등과 협의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승인으로 분양 아파트 건립 사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재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내년 3월 LH공사와 택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3월경 분양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후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도 택지 사용이 허용되는 2014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용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개발 이익 확보를 위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해 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할 것"이라며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도입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과 주택행정팀 729-3381

※공동주택 분양정보 확인 시 홈페이지 접속(www.seongnam.go.kr) → 분야별 정보(상단 우측) → 생활정보 → 주택분양정보

주민등록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10월 31일부터 일제히 변경 적용

성남시는 10월 31일부터 기존의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정('62년)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급받는 주

ٺ ﻙ ٺ ƛ ɺ ʕ έ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그동안 사용하던 동명과 지번 표기의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적은 도로명주소로 표기돼 발급받게 된다(예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203번지 →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63번길 14-1).

그러나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ٺ ٺﻙ

가 표기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민에게는 각 동 주민센터가 새 주소 스티커를 교부해줘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시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번주소로 민원 신청을 받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729-2373

알려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시행

지난 2011년 10월 20일 공공관리제도 관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민간 재개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관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관리 지원의 대상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때까지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개발과 이주홍보팀 729-4451~2

Pride of 성남

성남시 아동급식지원 '최우수기관'

성남시가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와 가족여성연구원이 실시한 '아동급식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Ŝ ˛₩ٻ 1/» ô Ά ₭

평가에서 시는 사업추진 의지, 수혜자 만족도, 방학중 급식대책, 위생실태 점검 등 총 9개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얻었다.

지역 내 7천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가가호호 방문해 각 특성에 맞게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방학 중에도 중식 등을 제공해 결식아동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급식업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 급식 제공 시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위생상태에 대한 수시점검(사진)을 벌여 급식에 대한 수혜아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앞으로도 시는 급식사업을 적극 펴 나가 자라나는 아동들이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 729-2943

무한돌봄사업이 위기가정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및 개인이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성남무한돌봄센터가 위기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 시설이용료, 연료비, 출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7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상담과 안내

- 시 청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 729-2492~7
-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729-5941~5
-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729-6361~5
-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729-7218, 7237, 7238

‘2011 홍콩미용박람회’ 성남관 성황

천만불 이상 수출 기대… 해외시장 판로 확대 교두보 마련

성남시 관내 중소 수출기업들이 ‘2011 홍콩미용박람회(Cosmoprof Asia 2011)’에서 미용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11월 9~11일 3일간 중국 홍콩에서 열린 미용박람회에 관내기업 11개사로 구성된 성남관을 운영해 1천만불(118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수출길을 열었다.

파견 업체 가운데 ㈜하이로닉은 이번 전시회에서 스페인의 ‘Renovacio estetica’사, 포루투갈 ‘Depilarte’사와 현장에서 피부 미용기기인 Duoblo, Midas 등을 수출 계약했다. ㈜트루시스템은 12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해 미국의 ‘Amway’사와 피부진단기기의 소프트웨어 및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기회를 가졌다.

㈜비에스티는 홍콩의 ‘Blamstra Limited’사, Sellenabeauty사 등이 대리점 자격을 요청하는 등 해외판로개척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미인의 백화경 대표는 “해외에 마련된 ‘성남관’에 참여해 성남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면서 “구매력이 큰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해외시장개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관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1 홍콩미용박람회는 미국 · 홍콩 · 스페인 등 23개국에서 각 국가관을 구성해 출전했으며, 화장품 · 네일 · 피부 미용장비 · 헤어 등 1,780개 관련 업체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4

수정아이사랑놀이터에서 육아 도움 받아요!

11월부터 영유아 대상 자유놀이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성남시는 육아지원 시책으로 성남시 육아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를 지난 8월 시청에 이어 11월 수정구에 개소했다.

수정구 단대동 단대어린이집 3층에 위치한 수정아이사랑놀이터는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을 갖추고 영유아기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 정보와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자유놀이실은 시에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화~토요일 하루 3회(10:00~12:00, 13:00~15:00, 15:00~17:00) 운영된다. 인터넷 사전예약 50%, 현장접수 50%에 의해 회당 10가정이 이용할 수 있다. 자유놀이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화 · 목 · 금 오전 11시, 오후 2시에는 놀이프로그램(15분 내외)도 진행된다.

장난감도서관은 36개월 이하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원등록한 후 추첨돼야 이용가능하며 1차 추첨은 끝났다. 이용 희망자는 회원등록 후 12월 중 있을 2차 추첨을 기다려야 한다. 이용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수요일 오후 8시까지)다.

성남시는 관내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놀이터를 2014년까지 5개소 운영할 계획이다.

수정아이사랑놀이터 733-1640

“내가 추천하고 싶은 가게” 시청 홈페이지에 직접 올려요

성남시는 시민체감사업의 일환으로 11월 8일부터 성남시 전통시장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올리는 추천하
∫ ~ ī ī ∫ "Ω,

이 게시판은 자신이 이용해 본 업소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맛집, 가격이 저렴한 집, 가볼 만한 집 등을 직접 게시할 수 있다.

가게 소개글과 사진 등은 본인 실명 인증 후 내용
ㄱ ﻙ * ğ ̃Ḥʟ ˎ ῆ ㄱ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이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 가게 홍보와 더불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성남시의 숨은 명소들을 대외적으로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2

| 게시판 접속 방법 |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분야별 정보 → 생활정보 → 전통시장 → “추천하고 싶은 가게” 순으로 접속하거나, 성남시 전통시장 홈페이지 (http://market.cans21.net)

홈페이지

겨울철, 이렇게 대비하세요!

대설 기상특보 시

- 대중교통을 우선 이용하고, 도로변 주차는 피합시다.
- 내 집 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고, 비닐하우스의 눈도 수시로 쓸어내립시다.
- 등산객은 조속히 하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한파 기상특보 시

- 외출할 때는 보온(특히 머리부분)에 주의하고, 음주는 자제합시다.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농 · 축 · 수산시설 보온을 철저히 합시다.
-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난방 · 조명 시설을 확보합시다.

※ 국민행동요령 접속 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 기관안내 → 부서별 홈페이지 → 부서별 특화 홈페이지 → 안전문화운동 → 시민안전 → 안전길잡이

중원구 중동이 ‘중앙동’으로

중원구 중동 명칭이 중앙동으로 변경돼 11월 7일 ‘중앙동 주민센터 현판식’ 행사가 열렸다. 시는 본시가지 재개발 시점에 맞춰 과거 유흥가 밀집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동 명칭을 바꿨다.

애 . 정 . 성남

(애매한 것을 정해 주는 성남)

중원구민인데요, 생활쓰레기 언제 버리나요?

중원구는 올 11, 12월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쓰레기 유예제도’와 ‘낮에 쓰레기 배출 안 하기’를 시행합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낮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마세요. 꼭 일몰 후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쓰레기 수거시간은 오후 9시부터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쓰레기(비규격 봉투)는 수거하지 않고 경고문을 부착 계도합니다.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규격봉투 사용에 분리배출을 생활화합시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729-6321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 안내

- 정치후원금! 작지만 깨끗한 정성이 모이면 대한 민국의 희망도 커집니다
- 기부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02-523-6485),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
- 세액공제 :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성남시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희망자 신청접수

- 기간 : 10.22 ~11.30(40일간)
- 대상 : 본 위원회로부터 국외 강제동원 피해
  & ╜ C
  수습하지 못한 분)로 결정통보를 받은 유족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6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 서비스

- 내용 :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지능형 기능(GPS, 사진 등)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자치단체로 민원을 등록하는 서비스 (현장사진과 위치정보 전송 가능)
- 지역 : 경기도 전지역(11.10~12.11)
- 앱 : 통신사별 앱스토어 접속 → "생활불편" 검색 → 다운로드 설치
- 방법 :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 촬영 후 민원 불편사항 신고 → 민원접수 확인 → 민원처리(담당공무원) → 결과통지

민원여권과 콜센터운영팀 729-2402

수정구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합창에 관심있는 성남시 거주 여성
- 8 &/.81.|/081.'

수정구청 문화체육팀 729-5272

치매 무료 검진 실시

- 대상 :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절차 : 치매상담 후 무료 치매선별검사 실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치매정밀검사 연계)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739-3011

가정 내 녹슨 수도관 개량 지원해요

- 기간 : 11월까지
- 대상 : 주거용 건축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시설(94.3.31 이전 건축허가, 아연도강관 시공분만)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사업승인 전에는 신청가능
- 교체공사 : 총 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60만원
- 세척공사 : 총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60만원
- 근거 :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16조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729-4092~4

경기도 무한일자리 2012년 교육생 모집

- 과정 : 컴퓨터응용기계, 전기설비, 전기제어, 특수용접, 컴퓨터시스템, 자동차정비 등 9개 과정
- 접수 : 11.30(수)까지
- 자격 :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조건 : 만 15~50세

경기도기술학교 240-4721(http://vo.gg.go.kr)

성남시 마을기업 '되살림가게 웃는나무' 강좌

- 재활용품을 이용한 액세서리 및 인테리어 소품(오전 · 오후반)
  - 11.22~12.28(화 10:00~12:00, 수 19:00~21:00)
  - 수강료 : 총6강 2만원(재료비 포함)
- 환경살림이 양성교육
  - 11.28~12.17(월 10:00~12:00)
  - 수강료 : 2만원(총 4강)
- 장 소 : 되살림가게 웃는나무(상대원2동)

웃는나무 070-7798-0615 http://cafe.daum.net/vtree

분당 벨칸토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합창에 관심있는 30~50대 여성
- 연습 : 매주 목(11:00~14:00) 정자동 연습실

분당벨칸토여성합창단 010-2412-7097

2011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

- 시행일시 : 11.26(토) 03:00부터
- 조정내용(교통카드 기준) : 일반형 100원 좌석형 300원, 직좌형 300원 (순환버스 500원) 인상

홈페이지

교통지도과 버스행정팀 729-3713

아듀~ 2011

성남시립합창단 송년특집 가족뮤지컬 망태할아버지와 산타클로스

유명한 캐럴, 동요, 가요 등의 음악과 드라마가 중심이 되는 어린이들과 가족을 위한 창작뮤지컬 공연

일 시 11.30(수) ~ 12.1(목) 11:00
12. 2(금) ~ 12.3(토) 19:30(총4회 공연)
장 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작품소개
- 주크박스 형식의 가족 뮤지컬로 총6장 구성
-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 축복 등 유명 캐럴 등을 뮤지컬 형식으로 편곡

티켓정보 일반 5천원, 청소년 3천원, 장애인 · 65세이상 50% 할인
예 매 인터파크 1588-1555

성남시립합창단 729-4807(www.sn-pac.or.kr)

성남시립교향악단 제90회 정기연주회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9번 '합창' 전곡을 성남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국내 최고의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일 시 12.22(목) 20:00
장 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프로그램 베토벤 교향곡 9번(합창)
협 연 자
- 곽현주(소프라노), 김정미(메조소프라노), 전병호(테너), 박경종(바리톤)
- 성남시립합창단

티켓정보 전석 1만원, 청소년 · 65세이상 · 장애인 50% 할인
예 매 인터파크 1588-1555

성남시립교향악단 729-4809(www.sn-pac.or.kr)

12월 문화 · 스포츠

11.29(화)

중원구 명사초청 강연회

- 11.29(화) 14:30~16:40
-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 (강사 : 김형철 연세대 교수)
- 장소 : 금광2동 주민센터(대강당 4층)
- 성남시민 선착순 200명 입장

중원구 총무과 자치지원팀 729-6040~2

10.5(목)~12.18(토)

<한국화의 재발견>展

- 10.5 ~ 12.18(월요일 휴관)
-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 성인 4천원, 초 · 중 · 고 3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 단체(20명 이상) 각각 1천원 할인

※ 11.11~11.30 대학수능 수험생은 수험표만 지참하면 무료관람 가능

성남아트센터 783-8000

12.2(금)

어린이 성폭력예방 뮤지컬 "우리 친구가 위험해요"

- 12.2(금) 11:00(1회), 19:00(2회)
- 성남시청 온누리실
- 1회 : 만4세 이상 아동(어린이집 단체관람)
  – 선착순 전화 접수(729-2923, 2921~2)
- 2회 : 만4세 이상 아동 및 부모(개인)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neducare.or.kr) 접수

가족여성과 여성생활팀 729-2922

12.15(목) / 12.18(일)

성남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제니스배구단 경기

- 12.15(목) 17:00 vs 흥국생명
- 12.18(일) 16:00 vs KGC인삼공사
- 장소 : 성남실내체육관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사무국 779-5358

12.10(토)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크리스마스 음악회>

- 12.10(토) 17:00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지휘 금난새, 협연 바이올린 송지원
- 연주 :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티켓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12.16(금)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 vol.3

- LOVE CHRISTMAS
- 12.16(금) 19:00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사무국 070-7552-8832

12.24(토)~12.25(일)

바비의 호두까기 인형

- 12.24(토)~12.25(일) 총3회 공연(토요일 14:00, 18:00, 일요일 15:00)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출연 : TIMF 앙상블(지휘 아니 로스)
- 관람연령 : 5세(48개월) 이상
- 티켓 :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8117

성남아트센터 783-8000

※본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겨울레포츠 시청에서 즐기세요!

시청사 야외 스케이트장… 오는 12월 17일 개장
성남종합운동장 눈썰매장도… 내년 2월까지 운영

이제 시청사에서 겨울 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성남시는 하늘북카페와 체력단련장, 아이사랑놀이터에 이어, 성남 시청사에 야외 스케이트장과 성남종합운동장에 눈썰매장 등 겨울레포츠 시설을 설치, 오는 12월 17일(토)부터 내년 2월 19일(일)까지 총 65일간 운영한다.

시는 관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긴 겨울방학 동안에 멀리 가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도심 속에서 겨울레포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사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성남동 종합운동장에는 눈썰매장을 각각 설치한다.

여수동 시청사에 설치되는 야외 스케이트장은 폭 40m, 길이 81.2m 규모로 한번에 300여 명의 시민이 동시에 입장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회당 1시간 30분씩 총6회가 운영될 예정이며,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오후 7시까지 일일 5회가 운영된다. 스케이트 강습교실도 만6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와 10시에 각각 2개 반이 운영돼 생활체육 보급도 활성화한다.

중원구 성남동의 성남종합운동장에 설치되는 눈썰매장은 4천㎡ 규모에 성인용 10레인, 어린이용 5레인 등 총 15개 레인을 갖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매회 1시간 40분씩 총4회 운영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 10분까지 1회 연장 운영해 주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눈썰매장에는 어린이용 에어바운스 2종을 설치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달램과 동시에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야외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에어바운스 모두 장비대여를 포함해 회당 1천원, 스케이트 강습교실의 경우 월 2만원으로 시민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돼 온 야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은 매년 15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성남시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si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 729-3054